

여수국가산단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중앙119구조본부와 호남권역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체결 여수국가산단·호남권 사업장 산업안전 및 각종 재난대응 체계 마련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을 보유한 여수국가 산업단지 내에 200억 원 규모의 소방 첨단장비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된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사업부지 확보와 및 행정지원 등을 포함한 '호남권역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여수산단 내 청사 1개소를 포함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되며, 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호남권 사업장의 산업안전 확보와 화재·산불·수해지원을 위

해 다양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분당 4만5천L(대형 펌프차 분당 2,800L)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대규모 첨단장비로 포 소화약제 탱크 차, 펌프차, 이송차 등 10여대의 차량과 소방관 50여명이 운영 인력이 투입된다. 이로써 500만L이상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398기를 보유한 여수국가산단의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수증 펌프로도 활용돼 지역 내 침수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사업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을 할 것"이라며 "여수 국가산단 대형 화재사고 등에 총력 대응해 '안전한 여수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유류탱크 화재 후속조치의 계기로 도입됐으며 현재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국내 처음으로 운영 중이다.

여수=김현근 기자

"매돌이, 광양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로"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 진출

광양시 대표 캐릭터 '매돌이'가 '2023년 제 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해 전국 1등 캐릭터에 도전장을 던졌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정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기획배경, 디자인,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정한다. 올해는 총 137개 후보가 출전해 치열한 경쟁 끝에 '매돌이'를 포함한 30개 캐릭터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대국민 투표점수 50%, 전문가 심사점수 50%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정하는데, 대국민 투표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매돌이'는 지역 농특산품인 매실을 개구쟁이 소년으로 의인화해 개발했고, 매실의 '매'와 귀여운 남자아이 이름 '돌이'를 합해 '매돌이'로 이름 지어졌다. 2010년 탄생한 '매돌이'는 영원한 10살인

창의적인 개구쟁이이면서 예의 바른 모습이 팔팔팔팔한 청매실, 바로 그 자체이다. '매돌이'는 기도 많아 '오롯이광양' 유튜브, 광양시 인스타그램 등에 출연해 시 관광명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광양시 홍보대사로 임명돼 광양매화축제, 광양전어축제 등 광양 대표축제에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투표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동네 캐릭터' 누리집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 로그인만 하면 된다. 광양시는 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매돌이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돌이 인형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는 투표인증 이벤트도 마련했다. 정해중 홍보소통실장은 "매돌이가 광양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해 시민들의 큰 사



랑을 받고 있다"며 "광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돌이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소통실 미디어팀 (☎797-19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현근 기자



순천시, 도시재창조 한마당 2개 부문 대상·우수상

순천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관하는 '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2개 부문에서 대상(국토부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재창조'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공유하고, 토론회, 해커톤 등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순천시는 저전동 정원마을 특화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운영 관리 사례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주택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정원을 조성하여 개방하는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비타민 저전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저전동 내 자투리공간 및 유휴공간을 활용

조성된 정원을 도시재생 이후, 주민이 가꾸고 관리하는 저전동 정원마을 특화를 진행했다. 또한,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거점을 이용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민커뮤니티시설인 비타민센터, 저전동 내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을호텔, 공유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저전나눔터 등 총 10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담장개선 이웃사촌정원 조성사업은 개인 집에 담장을 허물어 개방형 정원을 조성(총 10호)해 새로운 정원 문화 창출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저전동 정원마을 특화에 일조하고 있다. 선진지 견학 시에는 정원주가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 간 정원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촌 해결사!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뜬다

보성군은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 강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청년4-H연합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

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4-H연합회 4명의 청년 농업인이 드론 방제에 참여해 7월부터 9월까지 40ha의 콩, 벼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100ha 면적을 대상으로 사료작물 중자 파종,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어 관내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과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